

20세기 전반 전남 서부지역 漢詩人들의 활동 모습*

- 민재와 지산의 경우를 중심으로 -

김대현**

<차 례>

- | | |
|---------------|-----------------------|
| 1. 머리말 | 3.1 사회적 관심과 우국적 정서 |
| 2. 민재와 지산의 생애 | 3.2 자연 풍경에 대한 형상화 |
| 2.1 민재의 생애 | 3.3 내면적 정서의 표출과 자기 성찰 |
| 2.2 지산의 생애 | 4. 맺음말 |
| 3. 작품 세계 | |

1. 머리말

호남 지역은 매우 많은 작가와 작품집을 남기고 있다.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잘 알 수 없다. 현재 계속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고 있고, 해제를 하면서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78-AS0052).

** 전남대학교

다. 최근 호남지역의 20세기 한문학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조사가 시도되었다.¹⁾ 호남의 20세기는 현재 천여 종이 넘는 한문학 작가의 문집이 남아있다. 지역권으로 보아서, 가장 방대한 문학 자료가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20세기 한문학이 이처럼 많은 자료를 남기고 있지만, 그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현재 20세기 전반의 호남지역에서 여러 지역의 문단이 포착되어지고 있다. 그 예를 들면, 전남지역에는 매천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구례 지역의 시단,²⁾ 소파와 설주를 중심으로 한 보성 지역의 시단³⁾ 등은 이미 알려져 있다. 전북지역에는 김제의 석정 이정직과 제자인 유재 송기면을 중심으로 한 문인 그룹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여러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⁴⁾ 그러나 이 밖에도 더 많은 문단 내지 시단들이 집단적인 교류를 하면서 활동을 하였을 것이다. 앞으로 20세기 호남 한문학의 연구는 이러한 문학 집단을 좀더 밝혀내는 연구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다시 전남의 서부 지역, 무안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군의 작가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들의 문학적 성취를 파악해 보려고 한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한 작가로는 전남 서부지역, 무안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민재 박임(朴琳相, 1864~1944)과 지산 고재현(高在

1) 20세기 호남 한문학 자료에 대한 조사 결과가, 『20세기 호남 한문 문집 간명 해제』라는 이름으로 2007년 호남문화 자료총서 1로 경인문화사에서 간행되었다.

2) 구례지역의 시단은 김정환에 의하여 2006년 여름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되었다. 이 논문은 매천의 제자 그룹에 대한 최초의 연구 성과이다. 2007년 호남문화연구소 호남문화 연구총서로 경인문화사에서 간행될 예정이다.

3) 20세기 전반, 보성 지역의 시단 활동은 김대현, 〈소파와 설주의 생애와 시문학연구〉, 『고시가연구』 17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6년에 논문이 실렸다.

4) 최근 석정 이정직의 문집이 번역되면서,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의 시문학에 대하여는 기태완, 이월영, 구사회, 김정환 등의 논문이 있다. 번역은 2001년, 『국역 석정 이정직 유고』가 김제문화원에서 간행되었다.

鉉, 1885~1967)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⁵⁾ 이들은 사제간의 관계를 지니지만, 각자가 서로 활발한 강학 활동과 문학 활동을 해 나갔다. 이들의 노력에 의하여 전남 서부 지역은 여러 문인들이 작품집을 남기며 문단을 이루게 되었고 생각한다. 먼저 이들 두 작가의 간략한 전기적인 생애, 그리고 작품내용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 민재와 지산의 생애

앞서 말했듯이 20세기 전반 무렵에는 호남 지역의 각 지역에 나름대로 지역의 문단이 존재하여 있었다. 전남 서부 지역, 좀더 구체적으로 무안을 중심으로 한 문인들의 집단도 활발한 문예활동을 펼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여기서 민재 박임상과 지산 고재현의 문학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들 작가들은 전남 서부 지역의 문단의 주요한 인물들이다. 물론 이 글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작가들이어서, 먼저 그 생애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한다.

2.1 민재 박임상의 생애

당시 무안의 문인들은 많은 수의 유림들이 송사계열의 영향을 받아, 위정척사 사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위정척사 사상은 거의 모든 유림들의 기본 사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무안 지역에서도 여러 문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인물로 먼저

5) 두 작가의 문집에 대한 해제가 『20세기 호남 주요 한문 문집 해제』라는 이름으로 2007년 전남대 출판부에서 자료집으로 간행될 예정이다.

민재 박임상(朴琳相, 1864~1944)을 들 수 있다.⁶⁾ 그는 송사 기우만의 문인으로 무안 지역에서 강학을 통하여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였고, 또한 문필활동에 종사하였다.

먼저 그의 생애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그의 자는 孺玉, 호는 敏齋, 본관은 務安으로,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는 인근 마을의 族叔인 죽포 박기종(朴淇鐘, 1824~1898)의 문하에서 공부하였으며,⁷⁾ 18세(1881년) 경에는 인근 지도면에 유배중이던 重菴 金平默의 문하에 출입하면서,⁸⁾ 그의 사상을 받아들였던 듯하다. 33세(1896년)에는 포천의 면암 최익현의 문하에 찾아가 학문을 익혔다. 그의 호인 '敏齋'는 면암이 지어 준 것이다.⁹⁾ 그는 1895년 을미사변 때 스승인 송사 기우만의 의병을 일으키자 참여했으며, 을사조약 체결 후 면암의 의병에도 참여하였다. 면암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적진인 대마도에서 죽음을 당하였는데, 민재는 心服으로 終喪하였다. 그 후 1910년 나라가 망한 뒤부터는 손님을 사양하고 울분으로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

그는 유학에 높은 경지를 이루었으며, 당시 송사와 면암 등에 의하여 주도되었던 衛正斥邪派의 계보를 이어나갔다. 특히 단순한 문예미를 추구하는 詞章學的 학문태도를 배격하고 도덕에 바탕을 둔 窮理의 학문을

6) 그의 시문집은 『민재유고』가 8卷 4冊의 石印本으로 남아있다. 최근 영인본이 서울 : 해성사, 平川精舍, 2001.로 출판되어 참고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이하 이 책에 실린 시문을 인용한다.

7) 죽포 박기종의 문집인 『죽포집』 10권 4책이 남아 있다.

8) 김평묵은 1881년(고종 18) 이만손(李晩孫)을 비롯한 1만여 명의 영남 유생들의 위정척사운동(衛正斥邪運動)을 후원했다. 같은 해 7월에 다시 초안하여 올린 척양척왜(斥洋斥倭)의 소(疏)로 말미암아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임오군란으로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집권하자 풀려났다. 상경한 뒤 수년 뒤에 다시 그 곳에서 3, 4년간 유배 생활을 하면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였다. 김평묵은 李恒老의 학문을 계승한 화서학파의 일원이다.

9) 그 뒤 그의 스승인 송사 기우만이 다시 〈敏齋記〉를 지어 그의 학행을 권면하였다. 『민재유고』에 이 글이 실려 있다.

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선비들은 마땅히 보국의 정신을 함양하여 국난을 극복하는 데 진력해야 함을 설파하였다. 많은 선비들이 문하에 출입하였는데, 문인으로서 이름을 이룬 사람이 백여 인에 이르렀다.

또한 그는 많은 시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다. 그의 글 〈遊山亭詩會契序〉는 유산정 시사의 서문이다.¹⁰⁾ 그 밖에도 여러 시회에 참여하는 작품이 남아있다.

만년에는 장수지소인 平川精舍를 세워 優遊하다가 세상을 마쳤다. 그의 사후에 鄉儒들의 공의로 최익현과 기우만을 모시는 平山祠에 追配되었다. 그가 교유하였던 주요 인물로는 세 스승 이외에 重菴의 高弟들인 龍西 柳基一과 遜志堂 洪在龜를 비롯하여 송사의 벗들인 難窩 吳繼朱 및 後石 吳駿善 등이 있었다. 그의 문인록으로는 『溪山近藍錄』이 있으며, 『蘆沙先生淵源錄』에도 그의 문인편이 실려 있다.

앞서 말했듯이 그의 문집으로 『민재유고』가 남아 있다.¹¹⁾ 민재는 무안의 溪山齋에서 강학을 하면서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그 가운데

10) 遊山亭은 무안읍 교촌리의 동산 위에 있다. 면성부원군, 면암 박문오가 정계 은퇴 후 건립한 정자로 무안 박씨들의 역사적인 유산이다. 예전에는 〈유산 8경〉을 노래할 정도로 멋진 절경을 자랑하는 장소였다. 앞에는 생선지 또는 불무제라고 부르는 커다란 방죽이 있어 낚시와 조각배를 띄워 세월을 회롱하고 시국을 논하는 선비들의 전형적인 학문의 터이자 풍류의 공간이었다. 무안 시사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 『민재유고』 권1에 〈遊山亭詩社韻〉 1수가 실려 있다.

11) 이 책은 그의 아들 炫豊과 손자 學周에 의해 1945년 4, 5월경에 8권 4책으로 간행되었다. 당시 그의 가세가 어려웠던 때라 문인 제자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원래 『민재유고』에는 서문과 발문, 행장 등이 없어 편집·간행 경위와 저자의 행적 등을 알 수 없으나, 문집 간행 직후 아들 炫豊이 家狀을 지었고, 수제자인 竹坡 朴淇靑이 행장을 지었다. 또 1960년에는 正齋 梁會甲이 墓碣銘과 그 并序를 지었다. 행장과 묘갈명은 『竹坡遺稿』와 『正齋集』에 실려 있다. 최근에 韓國學術振興財團 이사장을 지낸 증손 朴錫武는 『민재유고』의 영인본(도서출판 해성사, 2001)을 만들어 가전의 이야기를 모아 정리하고 행적을 소개하였는데, 현재 문집의 번역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죽파 박기청, 지산 고재현 등은 문집을 남긴 제자들로 민재의 사상과 문학을 이어나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지산 고재현의 생애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2 지산 고재현의 생애

지산 고재현은 민재 박임상의 문하에서 한학을 익혔다. 그가 민재선생에게 올리는 편지를 남겼는데, 문집에 전하고 있다. 지산은 처음 이름이 在鳳이며, 자는 致球이고, 志山은 그 호다. 호의 뜻은 곧 '뜻을 세움을 산과 같이 한다'는 의미이다. 高宗 을유년, 1885년 12월 24일 무안읍 龍月里 上洞 집에서 태어났다.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책상을 대하였고 하는데, 소년 무렵에 七書를 독파하였다. 향리에서 민재 박임상에게 나아가 공부하며 그 견문을 넓혔다. 그뿐 아니라 송사 기우만 선생을 무안에서 모실 기회도 가졌다고 한다.

정미년인 1907년에 서울을 가다가 公州에 이르러, 문득 깨달아 말하기를 “지금은 벼슬에 나갈 때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곧 연재 송병선의 靈筵으로 가서 글을 지어 제문으로 올렸고, 그리고 심석재 송병순를 찾아가 그 門路를 정하였다. 나라가 망한 이후 강개하여 울면서 때때로 시문에다 심회를 표현하였다고 한다. 왜적을 일찍이 제거하지 못함을 길게 탄식하고, 강가에서 낚시하며 그 울분을 풀었다. 高宗과 純宗이 앞뒤로 서거하자 北望하여 舉哀하고 3년 동안 상복을 입었다.

망령된 법으로 剃髮을 행하고자 관리들을 동원하여 유혹하였으나 의리를 내세워 불응하였다. 평생 몸에 서양물건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서양 제품의 사용금지론을 주장한 송병선의 사상을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녀자가 마을 밖에 출입함을 금하였다고 한다.

공은 일찍이 양친을 여위고 風樹之嘆이 절통하였는데 두 형을 부모처럼 섬기었다. 형수가 오랫동안 앓았는데 정성을 다하여 치료하여 임신하여 자식을 낳게 되자, 사람들이 지봉공의 主鬻이 끊이지 않은 것은 거의 공의 보살핌의 정성이라고 하였다. 두 딸이 일찍이 과부가 되었는데 경계하고 보호하여 끝까지 그 절개를 지키게 하였다.¹²⁾

언제나 말하기를 지금의 도는 무너짐이 날로 심하여 백 가지 사악함이 서로 일어나니 마땅히 뜻을 굳게 하고 열심히 반성하여야 한다. 평범함을 싫증내고 괴이함을 좋아하지 말고 옛 것을 버리고 새 것만 좇아서는 안 되고 악한 바를 생각해서는 안 되니, 마음속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늘 孔子를 조로 삼고 朱子를 종으로 삼고, 靜菴·退溪·栗谷·沙溪·尤菴을 準的으로 삼아서 나아가고 나아감을 그치지 않는다면 어찌 성현 아래의 지위에 이르지 못함을 근심할 것인가 하였다. 그의 사상의 바탕에는 유학의 근본바탕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미년 1967년 5월 17일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朴竹坡 淇靑과 金曉堂 文鈺이 記文을 지어 칭양하였다. 遺稿 2권이 손자의 집에 소장되어 있다.¹³⁾

12) 지산은 다른 유림들처럼 爲先 사업에도 매우 열심히 일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을축년 무술년에 大譜를 다시 만들 때와 松雪公의 祠宇를 복원할 때 힘을 쏟음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지봉공과 藥齋公 家狀을 찬술하고, 宋止齋 哲憲과 金山 福漢 두 사람에게 묘문을 청하였다.

13) 그의 유고는 머지않아 전남대학교 호남한문학연구소 근대문집 번역총서로 전남대 출판부에서 간행될 예정이다. 간행 예정인 현재의 필사본인 『지산유고』 앞부분은 시이고, 뒷부분은 서간문 등의 산문 문장이다. 그리고 뒤에 부록을 붙였다. 시 부분은 약 400여 편, 산문이 모두 합하여 100여 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간행예정본 원고를 사용하였다.

이상으로 민재와 고산의 생애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이제 이들의 시문과 그 작품세계에 나타난 특징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3. 작품 세계와 그 특징

민재와 지산, 이들의 작품세계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을까? 일제시기, 사라져가는 한문 문화의 중심에 서서,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정신세계를 펼쳐 나갔을 것이다. 주로 민족의 정신을 지켜나간다는 척사 사상의 흐름 속에서 생활하였지만, 이미 유학의 효용가치가 점점 쇠퇴하여 가는 시대에 살았기에, 사회적 어려움이 여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들의 작품 속에 나타나 있다. 몇 가지 분야로 그 특성을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3.1 사회적 관심과 우국적 정서

일제시기 이들 작가들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큰 흐름 가운데 하나가 우국의 정서이다. 나라를 빼앗긴 울분과 슬픔 속에서 나라를 살아나갔던 지식인들이니 만큼, 이들의 작품 속에는 나라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내용들의 작품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들의 시에 나타난 중심된 사상은 위정척사를 바탕으로 한 사상이다. 민재는 앞서 말하였듯이, 중암, 면암, 송사 등 세 분을 스승처럼 모시고 있었다. 그들의 사상이 잘 알려져 있듯이, 노사와 화서의 사상을 이어받는 위정척사 사상이었다. 그런데 민재를 중심으로 한 이들 무안 지역의 문인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잘 알다시피

송사 계열의 문인들은 의병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민재의 잡저 가운데 〈尊壤兪〉은 尊周와 春秋大義를 밝히고, 忠義의 선비들은 보국의 정신을 길러 국난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임을 강조한 내용이다. 한말의 위정척사 사상이 강한 민족 자주의식과 연결되어 있음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이러한 의식이 의병 운동과 외세의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이나, 나중에 의병활동에 대한 혹독한 탄압 등은 이들 문인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시련이었다. 광산 지역의 난와 오계수, 후석 오준선 등도 큰 문인집단을 형성하면서, 이들 무안 지역의 문인들로 이들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사상적 기조 또한 외국에 대한 개방을 반대하고, 전통을 지키는 위정척사 사상이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서간문을 보면 그가 교유하였던 문인들의 관련이 잘 나타나 있다.¹⁴⁾

민재유고에는 142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그의 시는 傷時·歎世·憂國 등 쇠망해가는 국가 앞에서 위정척사를 주장하는 야인으로서 우국적 문인의 기개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민재의 우국에 대한 대표적인 시이다.

五百年來作聖君	오백년 이래 성군의 시대를 이루었는데
豈圖萬國勢相分	만국의 세력이 나뉘게 될 줄 생각이나 했으랴.
當世益難能用武	이제는 더더욱 용무할 길도 없는데
何時復觀大修文	어느 때나 다시 文興을 보라.
願豐屢誦周郊雨	원컨대 풍년들어 주나라의 비를 노래하고
希泰遡瞻舜殿雲	태평하여 순임금 궁전의 구름을 바라보고 싶구나.

14) 『민재유고』 卷2에는 서간이 81편 실려 있다. 서간은 崔益鉉·奇宇萬·宋秉禧 등에게 올린 것을 비롯하여, 여러 문인들과 주고받은 것들이다. 衛正斥邪의 사상을 견지하며 국난을 헤쳐 가는 유림들의 시대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서간문이라고 하겠다.

漆室縻憂人莫道 칠실 아낙의 걱정을 말하지 말라
 布衣可赴北征軍 포의라도 북정 군사로 갈 수 있느니.
 〈나라를 근심하다 憂國〉

이는 시제가 그대로 보여주듯이, 대표적인 우국의 시이다. 수련은 구한말 이후 융성했던 조선 오백년 왕업이 졸지에 외세에 의해 나뉘게 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다. 어떠한 외세에도 굴하지 않고 꾀꾀하게 지켜온 우리 겨레가 외세에 짓밟히게 된 작금의 정세에 대한 탄식이다. 그의 기본 사상은 위정척사임을 생각할 때 이는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으리라.

함련은 나라의 무장도 해제된 마당에 나라를 위해 쓸 수도 없는 처지인 지라 다시 도래할 민족의 태평성대를 그리워하고 있다. 경련은 주나라 시절의 풍성함과 순임금 시절의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싶다는 것이다.

미련은 칠실(漆室)의 아녀(嫠女)의 근심이라는 고사를 인용하여 나랏일을 걱정하고 있다. 魯나라 칠실읍의 과년한 여자가 기둥에 기대어 슬퍼하므로 이웃 여인이 물으니 “노나라의 임금은 늙었고 태자는 어리기 때문이다.”하니 “그것은 卿大夫가 근심할 일이다.”하였는데, 다시 “그렇지 않다. 예전에 손님의 말이 달아나 내 남새밭을 밟아서 내가 한 해 동안 남새를 먹지 못하였다. 노나라에 환난이 있으면 군신·부자가 다 옥을 당할 것인데 어찌 여자만 피할 곳이 있겠는가?”하였다는 『열녀전』의 고사를 인용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을 포의이지만 필요한 경우 나라를 위해 싸움터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憂國〉은 격변기에 나라를 걱정하는 민재의 심경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하겠다.

한편 지산의 작품에도 시대를 아파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 많다. 이런 시들은 스스로 한스러워하라는 뜻의 제목을 함께 지니기도 한다. 다음은 지산의 작품이다.

農家無復立錐餘 농가에 다시 송곳 꽃을 여지도 없는데
 墾土三千捲沒如 강토 삼천리가 말아져 없어진 듯하네
 小輩不知軍國事 젊은이들 군국의 일을 모르고서
 長歌花柳送春虛 꽃과 버들 아래서 긴 노래로 봄을 허송하네
 〈스스로 한탄함 自恨〉

농가에는 송곳을 꽃을 땅도 없을 만큼, 모두 외세에 속하게 되었다는 표현이다. 삼천리강토가 말아서 없어졌다고 하는 것도, 국토의 유린을 아쉬워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이러한 일도 잘 모르고, 봄이 오면 긴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일삼는다고 탄식하는 내용이다.

또 지산은 1926년 순종의 인산 날에 쓴 여러 시에도 우국의 정서가 짙게 베어 있다. 인산 소식을 듣고 지은 시가 여러 수가 있다. 그 중의 한 편이다.

金谷悲風白日寒 금곡의 슬픈 바람 밝은 해 차갑고
 吾皇陵寢永宮安 우리 황제 능침 영궁이 편안하네
 渴澤鳴魚臨禍迫 마른 소택의 뼈꺼대는 물고기 화에 임함이 급하고
 栗巢孤卵冀專難 둥지 뒤집힌 외로운 알은 온전함을 바라기 어렵네
 萬壽山光春恨碧 만수산 빛은 봄에 푸름을 한스러워하고
 億千民淚血流丹 억 천 백성의 눈물은 피 흘러 붉네
 書生此地終天痛 서생은 이곳 하늘 끝에서 비통하여
 只向北雲哭素冠 다만 북쪽 구름 향해 흰 관 쓰고 곡하네
 〈인산 소식을 듣고 4월 20일 聞因山 四月二十日〉

고종의 붕어는 3·1운동을 불러왔고, 순종의 붕어는 6·10 만세운동을 불러왔다. 그 만큼 백성들은 임금의 붕어에 말 그대로 나라가 무너지는 인식을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우국 정서를 표출하는 여러 작

품들이 실려 있어서, 이들 문인들의 주요한 시적 경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우국 정서가 표출된 것은 민재의 경우, 여러 산문 작품으로도 나타나고 있다.¹⁵⁾ 그의 문학론으로는 사장의 학이 아니고, 도를 배우는 학문 본연의 자세를 지닐 것을 주장하고 있다.¹⁶⁾ 그의 척화 사상과 관련이 있는 글로, 〈頭流山刻石小序〉는 전남 신안군 지도읍 頭流山 상단 頭流壇에 새겨진 글씨에 관한 소서이다.¹⁷⁾ 이는 신안으로 유배갔던 김평묵과 관련이 있던 내용이다.

척화 사상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 근대 유학자들의 눈에는 世道の 추락과 그에 따른 감개를 토로하는 작품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세도의 추락’, 이는 근대의 유학자들이 느끼는 기본적인 정서이다. 그에 따른 상실감이 그들의 작품에 자주 나타나고 있다. 그들의 독

15) 예를 들어 〈三學士傳贈書記〉는 동문인 金道源으로부터 宋時烈이 편찬한 삼학사의 전기를 얻어 읽고 난 뒤에 쓴 글이다. 병자호란 때의 치욕적인 굴욕에 원통함을 금치 못하고, 삼학사의 의기 높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백 년 동안 綱常이 찬연히 빛나고 있음을 높이 기리면서, 조정의 신하된 자들의 일대각성을 추구하고 있다.
 16) 〈爲己說〉·〈書諭同社諸友〉·〈立志說〉 등은 학문하는 사람들이 詞章에 전념하여 외식적인 영화나 부귀만을 추구하는 그릇된 태도를 지적하고, 윤리·도덕에 바탕을 둔 窮理의 학문 본연으로 복귀할 것을 주장한 글이다. 이는 윤리적, 도덕주의적 문학론이라고 할 만하다.
 17) 김평묵은 화서 이항로, 매산 홍직필을 스승으로 모시고, 위정척사 사상을 계승하고 있었는데, 1881년 척화 사상을 주장하는 항소에 앞장섰다가 그 해 8월에 지도로 유배되었다.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고 대원군이 재집권을 하자 유배에서 풀려나는데, 후에 대원군이 청나라로 잡혀간 뒤 다시 지도로 유배. 지도에서 머문 시기는 4-5년 정도라고 한다. 그는 두류대강당이라는 서당에서 후학을 육성했다. 이때 인근 무안 현경에 살던 박임상은 김평묵의 문하에 가서 사사한 바 있다. 1914년에 호남 지방의 선비들이 전라도 지방의 학문과 사상에 있어서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이항로, 기정진, 김평묵을 단비로 모시고, 3현단이라 칭하였다. 이후 1919년 최익현이 추가되었고, 1948년 김평묵의 제자였던 지도 출신의 나유영의 비가 세워져 현재는 오선비의 형태를 하고 있다.

민재에 비하여 지산은 근대 문명을 적극적으로 읊었다고 할 수 있다. 시인의 관심이 좀더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다. 근대 문명이 찾아 든 것을 묘사한 지산의 시들은 흥미롭다. 다음은 광주공원에 올라서 쓴 시이다.

光山千古事	광산의 천고의 일이
一日夕陽中	하루의 석양 속에 있네.
變幻在瞬息	변환이 순식간에 있고
電燈處處紅	전등이 곳곳에서 붉다네.

〈석양에 광주공원에 오른다 夕陽登光州公院〉

전등불이 환하게 켜지는 것에 대하여 작자의 감회를 적었다. 변환이 순식간에 있다는 말에서, 세태의 급변이 주는 술회가 나타나 있다. 그리고 지산은 이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 편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근대 문물에 대한 시들이 지산의 작품에는 〈자동차 自動車〉 등 여러 편이 실려 있다.

3.2 자연 풍경에 대한 형상화

자연은 이들 작가에게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문학 작품의 주요 형상화 대상인 자연은, 세심한 관찰과 애정을 통하여 작품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전통적인 한시들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읊은 시들이 아주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자연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20세기 근대의 유학자들에 자연은 빼앗긴 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민재나 지산에게 자연이 큰 비중으로 드러나지 않은 점도, 오히려 이들 문학의 특징으로 거론할 만하다. 특히 민재에게 자연은 문학 작품의 중요한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자연 환경이나 농촌

의 모습에 대한 시들이 많지 않다. 몇 편 실린 시들에서 보면, 암담한 농촌 현실이 그려져 있다. 민재의 〈田家郎事〉와 같은 시에서도 禍機가 날로 심해져 가고 있고, 해마다 賦役이 더해진다고 하였다. 〈重陽有懷〉 시에서도, 秋氣가 荒涼하다고만 하였다. 이처럼 민재에게 자연은 대부분 고통스러운 현실의 투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지산에게는 비교적 여유로운 자연환경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산의 시에서는 이미, 일제의 시기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거나, 혹은 해방 후의 작품들도 섞여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민재나 지산은 사실적 풍경, 예컨대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시적 형상화, 실제적 공간에 대한 시적 형상화, 기행 공간에 대한 시적 형상화 등을 자주 남기고 있다. 이는 유학의 여러 제도, 예컨대 묘소, 사당, 누정 등에 관련된 유교 행위에 대한 시들을 많이 남기고 있다. 한시의 일반적 모습이지만, 누정시들도 어느 정도 나타나 있다. 20)

한편 지산은 이에 비하면 좀더 기행문적인 성격의 작품을 많이 남기고 있다. 먼저 그의 세거지를 중심으로 한 호남 지역을 방문하여 읊은 시가 여러 편이다. 다음은 능주에 가서 지은 시이다.

綾州城外水東流 능주성 밖 물은 동으로 흐르고

20) 민재가 평천정사를 짓고 나서 지은 시이다. ‘平川一帶水 평천 한 줄기 물은 / 曲曲抱山流 굽이굽이 산을 안고 흐르네. / 惟愛無塵累 오직 속세의 티끌 없음을 사랑하여 / 起亭八十秋 팔십 나이에야 정자를 세웠네.’

〈평천정사운 平川精舍韻〉 이 작품은 유교 중 시의 마지막에 실려 있는데, 이 시를 읽어보면 그의 맑고 담담한 평생을 알 수 있다. 민재의 이 시에 대하여 지산의 시가 있다. ‘先生高躅問何處 선생의 높은 자취 물을 곳 없는데 / 川水澄澄日夜流 냇물은 맑게 밤낮으로 흘러가네 / 惟有依山松一棟 다만 산에 의지한 소나무 한 용마루가 있어 / 纖塵不到鶴千秋 작은 먼지 이르지 못하고 학만 천추에 나네’

滿眼森羅故國愁 시야 가득 늘어진 건 옛 나라의 근심이네
 樂豐樓下斜陽日 낙풍루 아래엔 석양이 기울고
 控海堂前万木秋 당해당 앞엔 온 숲에 가을이네
 衣冠輓入獸蹄裏 의관은 짐승의 발굽 아래 뭉개지고
 言語亂鳴駭舌頭 언어는 때까지 혀에서 어지럽게 울리네
 西望惟存夫子廟 서쪽을 바라보니 부자의 사당이 남아 있어
 巨天吾道祥雲浮 하늘에 닿은 우리 도의 상서로운 구름이 떠 있네
 〈능주 옛 고을을 방문하여 過綾州舊邑〉

이 밖에도 〈문명호 춘장의 송죽정에 차운함 능주에 머물며 次文明浩春丈松竹亭 居綾州〉라는 능주 기행시가 더 있다. 금강을 가서 쓴 시도 있다. 〈금강의 돌아가는 돛배 錦江歸帆〉나 〈백마강을 유람하고 遊白馬江〉도 있다. 이처럼 지산의 유람 시는 자주 눈에 뜨인다.

三載遊江湖 삼 년간 강호를 유람하니
 便同一釣夫 곧 한 낚시꾼과 같네
 白鷗亦慣面 흰 갈매기 역시 얼굴 익숙하여
 親近似相呼 친근하게 서로 부를 듯하네
 〈남쪽을 유람하며 南遊〉

이 시는 매우 재미있게 표현되었다. 갈매기와 친근하게 서로 부를 듯하다는 무척 재미있는 묘사를 하고 있다. 기행을 하면 시인들은 계절의 변화에 민감한 법이다. 따라서 계절의 변화를 나타낸 시들도 자주 눈에 띈다. 〈동지에 읊다 冬至吟〉이 몇 수가 있다. 그러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많은 시를 남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에 대한 지산의 너그러운 자세는 영물시의 창작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다. 따라서 지산 시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영물시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 가지 물건이나 현상을 문학적으로 읊기는 풍부

한 상상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읊은 시들도 여러 편이다. 거울을 다룬 〈面鏡〉, 기러기를 그린 〈雁鳥〉, 심지어 지네를 그린 〈蜈蚣〉, 개구리를 그린 〈蛙〉, 파리를 그린 〈蠅〉이라는 작품도 있다. 여기서는 종이와 붓을 다룬 지산의 작품들을 들어본다.

紫闥龍門排可登 붉은 문 용문을 밀치고 오를 수 있어
 世間此友親無層 세간에서 이 벗을 친함에 층이 없네
 平生最喜清勤士 평생 가장 기쁜 것은 맑고 부지런한 선비가
 晝逐長時又夜燈 낮에 긴 시간을 따르고 밤에 등불 켜는 것이네
 〈종이 紙〉

罪惡記功總立談 죄악을 기록한 공 모두 담론을 세우고
 把能吐氣閣能含 쥐고 토한 기운 멈추었다가 머금고
 如無錯枉揮之直 왜곡하지 않고 곧게 휘두르면
 今古不容姦軌男 고금에서 간궤한 남자를 용납하지 않으리
 〈붓 筆〉

물론 영물시의 기본인 화훼류를 다룬 작품들도 여럿이다. 특히 해당화를 읊은 시들도 몇 수 있다. 이 영물시에서 지산 시의 한 특징을 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유의 시들뿐만 아니라, 작자의 가치 판단 등이 배제된 그야말로, 풍경 그 자체를 서정적으로 나타내는 시들이 눈에 띄어 주목된다. 지산의 작품으로 다음처럼 서정시적 풍정이 물씬 베어나는 시들이 있다.

細雲暗夕窓 작은 구름 석양의 창가에 어둡고
 山女飯呼尙 산 아낙이 밥 주려 삼살개를 부르네
 一陣斜風到 일진 기운 바람이 이르러

4. 맺음말

근대는 유학의 쇠퇴기이다. 사회적으로 과거의 전통적인 학문인 구학은 사회적인 효용가치가 적어지고, 신학문이 주류를 이루어 새로운 사회 교육의 주된 내용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 유학자들은 신식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대신에, 고향의 사설 학교격인 서당에서 전통적인 학문을 연마하다가, 나아가서 후진들을 교육시키는 일에 몸을 바치다가 일생을 마친 사람들이다. 이들은 여러 시회, 혹은 백일장, 그리고 유교적 제도의 산물들인 향교나 서원 등의 일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활동을 하였다.

전남의 서부지역인 무안은 한말에 민재 박임상이라는 유학자가 유도를 진작시키면서, 한학을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하였다. 그 문하에서 여러 문인들이 나왔는데, 지산 고재현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미 성리학적 사유 체계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여, 그들은 사상적으로 독창적인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크게 보면 이들은 한말 이후에 향촌 지식층의 주된 사상이었던 위정척사 사상을 잘 이어받고 있었다.

노사와 송사로 이어진 호남의 위정척사사상은 근대 유림들이 누구나 추구하는 기본적인 사상이 되었다. 위정척사 사상은 민족주의의 색채를 강하게 지니면서, 조국의 자주권 수호에 온 힘을 기울이게 하였다. 그래서 호남은 한말 의병이 어느 곳보다 활발하였고, 그 가운데 송사 기우만과 그 문인들이 중심을 이루었던 유학자들의 의병 운동이 주된 사상적 흐름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

특히 민재는 송사를 비롯하여, 면암 등 위정척사파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었다고 하겠다. 하지만 지산은 그 활동시기가 약간 후대였

기에, 이미 위정척사파의 흐름조차 큰 역할을 못하던 시기에 활동하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산도 사회적인 관심은 우국의 정서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 유학은 그 관심이 사회에 있었듯이, 국가가 처한 시대상을 걱정하는 것은 이들 유학자들의 한시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경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연을 바라보는 이들의 태도는 유유자적한 모습이 아니었다. 특히 민재는 그렇다고 하겠다. 자연의 풍경이나 그 변화를 차분하게 바라볼 만한 여유로운 시대가 아니었다. 따라서 민재의 작품에는 자연을 그린 작품들이 거의 보이질 않는다. 〈憂國〉과 〈傷時〉, 그리고 〈歎世〉와 같은 나라와 세상을 근심하는 사회적 태도가 드러난 작품들이 여럿 인 점에 비하면, 그의 자연에 대한 시는 매우 적다고 하겠다. 그런데 지산은 좀 더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였으며, 詠物詩 등에서 보이듯이 자연에 대한 태도도 여러 각도에서 관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작자 자신의 내면적 정서를 드러내고, 자기 성찰 등 인간의 삶에 대한 태도 등을 드러낸 작품들도 두 문인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민재는 〈自悔〉 〈自警〉 등의 시에서 보듯이, 도학과의 관련이지만 스스로의 내면 정서를 드러낸 작품들이 여럿 보인다. 이런 점은 지산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유교적 지식인들의 성찰이 자신의 수양에 있었듯이, 스스로 경계하는 삶의 자세는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산도 여러 가지 스스로를 경계하는 작품들을 남기고 있어서, 이들 두 문인은 늘 문학을 통한 자기 성찰에 노력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참고문헌

朴琳相, 『敏齋遺稿』, 平川精舍 發行, 도서출판 해성사 인쇄, 2001년.

高在鉉, 『필사본 芝山遺稿』, 전남대 출판부, 2007년 번역 간행 예정.
20세기 근현대 호남 한문학 자료 수집 및 연구팀, 『20세기 호남 한문 문집
간명해제』,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자료총서 1, 경인문화사,
2007년 7월.
김대현, 『小波와 雪舟의 생애와 시문학 연구』, 『고시가연구 제 17집』, 한국
고시가문학회, 2006.

<투고일 : 2007. 6. 30. 심사일 : 2007. 7. 16. 심사완료일 : 2007. 8. 10.>

<Abstract>

An aspect of Han-Si(漢詩) writer's activity :
the western district in Chonnam (全南)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Kim, Dae-hyun

Ho Nam(湖南) province generated a great number of writers and their work books. It is not easy to figure out how many they are, however, it is approximately estimated that there are more than thousands of work books which were written by classical literary writers in the 20th century. It is also known that many literary circles existed in Ho Nam area at that time. The focus on the study for discovering Ho Nam literary circles will be committed more deeply in the future. In this thesis, there is a study about writers who conducted in the west of Cheon Nam, especially Mu An, along with their literary achievement.

The chief writers in this study are Min Jae (敏齋) Park Im Sang (朴琳相)(1864~1944) and Ji San (芝山) Go Jae Hyun (高在鉉)(1885~1967). In the west of Cheon Nam, Min Jae, Park Im Sang, a confucian scholar, was trying to establish classical literature by reviving justice of confucianism under Japanese domination. During that time many literary writers were generated

and one of them is Ji San, Go Jae Hyun.

Min Jae followed the theory of Yi Jung Cheok Sa Pa that Song Sa(松沙) and Myun Am(勉菴) represented. Ji San also showed a great deal of patriotic feeling in his work in terms of social interest. It is a natural tendency that the confucian scholars expressed their worries about the situation of their country in their classical poems at that time, as they had a strong interest in the society.

Their attitude toward nature was not comfortable, especially for Min Jae. Those days the whole society was not free from cares enough to observe the change of the nature. Therefore, Min Jae's works hardly included painting about nature. In contrast, Ji San made more various works and showed his intense interest and attitude about nature in different angles, as seen in poem Young Mul (詠物詩).

The two literal writers delivered their own inner emotion and the attitude of human life in their works differently. Min Jae wrote quite a few works which made him express his inner feeling. They can be seen in poems like Ja Hyaе (自悔) and Ja Gyoung (自警). Ji San was like Min Jae, as well. Their effort to control their own life was expressed in their works in the same way, which was based on a belief that intellectuals' reflection is dependent on moral culture. This point demonstrates that confucian scholars always make their effort for their own reflection even through their works.

Key word : Min Jae (敏齋) Park Im Sang (朴琳相)(1864~1944), Ji San (芝山) Go Jae Hyun (高在鉉) (1885~1967), Han-Si(漢詩). Ho Nam(湖南) province.